

世界一周記 (完)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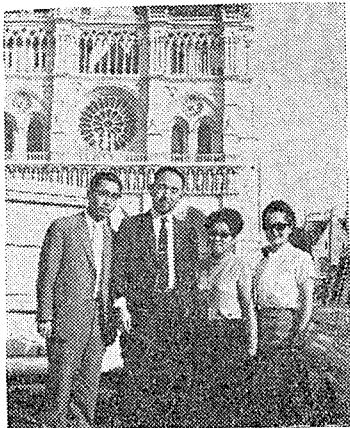
英 國

잔잔한 대서양을 건너 런던에 내린 것은 8월 14일 낮 11시경이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하여 혹독하게 공습을 당했다는 런던시가를 상상하면서 런던시대로 향했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에 가까이 갈수록 따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색이 창연한 옛 건물들이 대부분 전전하였고 전통을 자랑하는 그들의 자랑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르탄 들던 비그·벤, 국회의사당, 런던 부리지, 트라화르가 광장 등등 유서 깊은 곳들이 그대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감탄 했다.

나는 자유의 토론장소로서 유명한 하이드 파아크가 바로 걸전너 보이는 코버그 호텔에 안내되었다. 영국의 민주주의를 키워온 광장이 이 공원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매일 아침 산책 할 수 있는 나는 여러 가지 감회가 떠 올랐다.

몇일을 지나는 동안 미국과 영국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나는 놀랐다. 한국이나 동양에서 생각할 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핏줄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와 보니 사고방식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더욱이 실감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의 경제사정이 미국에 비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것을 체감하게 된다. 몇가지의 예를 들면 커피에 쓰이는 설탕은 흰것이 아니라 흑설탕을 사용한다. 일류호텔이라도 달달 남은수건을 쓴다. 비누는 다 없어질 때까지 새것을 안쓴다. 대부분의 호텔 각방에는 텔레비전 대신 유선 라디오가 되어 있다. 식당 테이블 클로스는 하루 종일 갈지 않는다. 종이 컵을 안 쓰는 것 등등이다. 미국에서는 이 반면에 매일 아침 새 비누가 놓여지고, 새 타올이 나오고, 한 사람의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



파리 노트르담 사원에서 필자(左)와 신재숙씨(右)

게 테이블 클로스가 갈리고, 한번 마시고 내버리는 종이 컵이 쓰이고, 방마다 텔레비전이 놓여 있고 하는 등을 비교 할 때 참으로 대조적이다.

그러나 영국인은 스스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들임을 발견하고 나는 그들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항상 쾌활하다. 나를 안내 해준 60정도의 여러 영국 신사는 명랑한 표정에 우산을 항상 들고, 틈만 있으면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는 여유를 다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가 대부분 독립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으니 우리네와 비교 할 수는 아직 없다. 그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런던의 가장 중심인 피카디리 광장은 미국과 구라과 각국에서 모여든 히피족들의 집합장소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구라과 여러 나라에서는 히피족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모여든다는 것이다. 남미 히피족들이 아침부터 술술 모여든다. 저녁에 어둑해 질 때가 가장 웅성거린다. 히피족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이 또한 모여든다. 구경꾼들도 역시 각국 사람들이다. 도대체 히피족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궁금해 한다. 얼굴도 제대로 안 씻은 그들은 각자가 제멋대로 입고 행동한다.

나를 안내하는 영국 신사는 얼굴을 찌뿌리면서 자기네들도 그들 생태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느 날 나는 자동차로 약 8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셰크스피어의 생가를 보러 갔다. 나를 태워다 준 자동차 운전수와의 하루는 여러 가지로 영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운전수는 물론 대학 출신이 었다. 그는 이미 두차례나 구라과 각국을 여행했다. 독일, 불란서, 스페인, 이태리를 비롯하여 그리이스로 부터 항가리, 체크코까지 갔었던다. 그러니 우리 보다는도 견문이 넓지 않을 수 없다. 구라과 각국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보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다고나 할까?

왕립 셰크스피어 극장에서 그의 작품인 "윈타 테일"을 구경했다. 그의 생가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그 생가 때문에 그 거리는 완전히 관광도시로 되어 있다. 셰크스피어가 애용하던 책상, 의자, 침대도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집은 16세기 독특한 2층 건물이다. 얼마 안떨어진 곳을 흐르는 냇가에는 백조가 평화스럽게 놀고 있다. 일년 내내 푸르기만한 동산, 군데 군데 밀집한 푸른 나무들, 어디까지나 평화스런 수많은 양떼들과 젖소의 무리…… 이런 광경은 셰크스피어로 하여금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한 배경들일게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대한 정치가인 처칠의 묘소를 방문 했다. 조그마한 교회 앞 뜰에 놓인 그의 묘석 앞에는 많은 방문객이 남기고 간 꽃들로 차 있었다.

영국의 서남쪽을 지나 중부 지방인 만체스터를 거쳐 영국의 북부 지방인 스코트랜드 수도 에딘바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영국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 거의 11이라고 할 만한 산을 보지 못하고 잔잔한 언덕과 끝 없이 잔디로 덮인 들 만이 연속 된다. 우리 나라 면적의 약 배에 달하는 그 땅은 이따금 밭밭을 볼 수 있을 뿐 전부 잔디, 잔디, 잔디 뿐이다. 그렇게 많은 잔디 밭에는 수없이 많은 양떼와 젖소 뿐이다. 끝 없이 계속되는 잔디 밭에 평화롭게 배저어 다니는 양떼를 볼 때 그저 마음이 평화스럽기만 하다.

우리 나라 보다도 짧은 역사를 가진 그들이 평화스럽고 안정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조상들을 자연히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전보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5천만 인구가 먹는 식량의 대부분을 아직도 전량 수입하고 있고, 바나나나 꿀 하나 나지 않는 그곳에서 먹는 과일 값이 오히려 원산지 보다 싸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잔디를 없애고 나무를 심는 것은 풍토의 아름다움을 해친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그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식민지에서 약탈하여 치부했지만 왜 우리 조상들은 약탈은 못했을 망정 빼앗기지만 했는가? 영국의 어느 시골에 가도 풍부한 전기와 찬물 더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도, 안락한 전물이 있을 뿐이다.

쭈쭈 끈끈한 내국의 고속도로에 비해 꼬불 꼬불하고 좁은 영국의 길은 그것대로 흥취가 있다. 미국에서와 같은 넓은 자동차를 한대도 볼 수 없다. 1930년대식인 네모진 택시가 런던에서는 유행이다. 어느 조그마한 동리에 가나 고적형인 영국 교회가 처음으로 눈에 뜨인다. 교회는 영국의 심볼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사람들 마음도 많이 변화한 모양이다. 즉 교회는 하나의 유품으로 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영국에 온지 28일만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다. 그동안 그렇게 하고싶던 우리말을 오랫동안 하게 되니 얼마나 기뻐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여름에 언어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이현복 씨다. 그는 나와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있었으며, 그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었던 분이라 더욱 반가웠다.

그의 집에서 한국 음식을 여행을 떠난 이후 처음 먹을 때 이렇게도 우리 나라 음식이 맛이 있었던가를 새삼 느꼈다. 처음으로 외국에 온 내가 아니건만 새삼 우리 음식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

런던 대학 한국학 교수인 스킨랜드 박사와 이현복 씨와 같이 만난 사람은 전연 예상하지 않았던 체코 사람이다. 그는 체코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더욱 한국어를 연구하기 위해 작년에 런던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이다.

그가 런던으로 올 때에는 드브체크 정권시대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서방국가에 유학을 보냈으나 드브체크가 실각한 후로는 다시 서방국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관계로 그도 여권 연장이 안된다면서, 조국 땅이기는 하나 공산정권 아래에는 가기 싫어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일면 가엾기도 하였으나 공산정권 아래에서 고생하는 이북 동포들의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었다. 그들이 서방국가의 민주주의를 동경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그를 통하여 새삼스러이 느꼈다.

런던에서 무어니 무어니 해도 볼 만한 것은 미술관이었다고 생각한다. 트라파르가 광장 바로 옆에 있는 국립 미술관에는 그때까지 복사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세계의 명화를 한 곳에서 전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루벤스의 “仁人의 妖精”을 위시하여 반 고흐의 “농부”, 마네의 “올림피아”, 모네의 “국회의사당” 등 각국, 각파의 原畵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은 이발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전연 문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일이라도 특요일 오후에는 한시부터, 그 밖에는 오후 5시반 또는 6시반 문을 전부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여기저기의 도서관을 보다보면 6시가 넘기 일수이고 그리고 나면 머리 깎을 시간도 없는 것이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 이외에는 거의 물건을 살 수도 없다. 그만큼 그들은 시간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유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구가 5천만 밖에 안되는 조그만 국가로서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다싶이하던 그들이 다시금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보인다. 런던의 가장 변화가인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큼직 큼직 한 쇼 윈도우에는 “대영제국은 위대하다”는 포스터가 도처에 붙어 있는 것이 특히 눈에 뜨인다. 이 포스터는 옛날 세계를 지배하던 그들이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제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영국을 떠나 뚝남아로

런던 비행장을 떠나 빠리로 가는 비행기는 보잉 727로서 약 200명이나 타는 큰 여객기다. 런던을 떠났는가 하면 어느새 빠리 비행장이다. 50분 밖에 안 걸린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비행기가 오간다. 런던이나 마

찬가지로 빠리 비행장도 몹시 붐빈다. 내리자마자 그곳 비행장 대합실에서 흘러 나오는 마이크 소리에 과연 국제도시임을 다시 실감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노서아어로 모스크바 행이나 마드리드, 로마 행이니 하는 아나운스가 끊임 없이 흘러 나온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비행기만 잘못 타면 체크, 항가리, 등백립은 물론 모스크바까지도 가게되는 곳이다.

빠리의 유네스코 본부 도서관에서 이미 10여년이나 근무하고 계시는 신재숙 씨를 비행장에서 그야말로 반가히 만난 것은 물론이다. 이국 땅에서 특히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여러 해만에 만날 때는 더욱 그렇다.

신선생 자가용 차로 시내를 향해 질주해 갔다. 중심가인 몸빠르나스의 한 호텔에서 나는 30여년전 내 고향에서 헤어졌던 소꿉 동무를 또 만난 것이다. 그곳에 온 지 10년이 된단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점령 당했던 빠리의 시가는 히틀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독일 점령군 사령관의 기지로 포화에서 모면되어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연 어디를 가나 모든 건물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는 그들은 창 밖에 빨래도 걸지 못하게 하는 법률까지 제정한 것이다.

자동차의 차선이 열줄이 넘는 빠리의 중심가인 샹젤리제는 과연 넓다. 쪽 빨은 넓은길, 아름다운 건물, 역사 깊은 개선문은 빠리의 독특한 맛을 이국사람에게 보여 준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 12개로 뚫린 大路…… 이런 웅장한 도시계획이 이미 18세기에 이루어졌다니 얼마나 그들의 스케일이 컸었나 하는 것에 감탄 할 따름이다. 그곳을 지나 나포레옹 묘소를 보고 에펠탑에 다다르면 그야말로 절경에 도달하게 된다. 동경 타우어가 에펠탑 보다 얼마간 높다지만 높은 것만으로 뽐낼 수는 없었다. 약 70년전인 1889년에 세워진 이 탑은 높이가 300m인데 그 아름다움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이 참으로 하나의 예술의 총화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공원의 웅장함 또한 장관이다.

무량무주는 우리들에게도 낯익은 곳이다. 캉캉이라는 춤이 시작된 그곳은 빠리의 밤세계에서 빼어 낼 수 없는 곳이다. 포도주와 샴페인으로 목을 추기며 빠리 아가씨들의 춤을 보는 그 맛은 이곳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장면일께다. 밤이 새도록 시간가는 줄 모르게 빠리의 밤은 깊어간다.

그러나 빠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갔을 당시에는 모든 철도가 파업으로

마비가 되어버렸고 체신 종업원의 부분적인 파업으로 전화마저 불통이며, 철도의 마비는 물가를 자극하여 빠리 시민들은 나날을 불안에 싸여 사는 모습이 눈에 두드러지게 띄었다. 물가의 앙등은 상당한 위협인 것으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드물이 물러난 후의 불란서는 그렇지 않아도 개방되어 있는 성문제를 더 한층 개방하는 결과가 되어 더욱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니 골치꺼리가 아닐 수 없다.

에어 프랑스에 몸을 실어 방콕을 향해 날아가는 도중 로마에서 태풍을 만나 격심한 고통을 겪은 후 이스라엘의 텔 아비부, 이란의 테헤란, 인도의 뉴델리 등지에 잠시 동안씩 기착하고 방콕에 도착한 것이다. 그와 같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는 동안 점점 피부색은 검은 빛으로 달라지고 문명지대로 부터 원시지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비행기로는 불과 몇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도 피부 색 같이 그렇게 달라지고 문화도에 그렇게 격심한 차이가 있다니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뉴델리 비행장에는 비행장 건물하나 뚜렷한 것이 없다. 비행기에서 본 인도의 땅은 개간된 땅이 보이지도 않는다. 습기에 찬 34, 5도의 무더운 온도는 인도인들의 어깨를 늘어 뜨리게하여 그들을 보기도 딱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보인다. 이터고서야 어디 살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봄에 개최되었던 아세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에 태국 대표로 참석하였던 마리아 박사를 방콕에서 반가이 만났다. 그는 내가 방콕에 있는 동안 극진한 대접을 해 주어서 나는 도리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다는 태국은 공중에서 보아도 관계가 잘 되어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쌀을 수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의화를 벌어들이는 곳임을 직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기후가 나아졌다는 9월 15일 낮 3시에 내가 내렸을 때의 기후는 80~90도의 습도에 섭씨 34~36도의 온도라는 뜨겁고 무더운 날씨여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날씨이다.

인구 약 100만인 태국의 수도 방콕은 왕이 기거하는 궁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이 있는데, 이 나라 독특한 건축양식은 불교국으로서의 동남아의 왕국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질주하는 많은 자가용차는 국민소득이 우리 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

우리 나라를 떠난 후 세계를 일주하는 동안 이곳에서 처음으로 껌차를 보게된 것은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 전쟁터가 가까운 것임을 알려준다. 거리에서 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 간판을 많이 보게 되는 것

은 중국인 화교가 많다는 것, 미군 상대 영일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노란 법의를 입은 불교도가 메를지어 여기 저기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기이해 보인다. 새 집과 같이 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빈민들이 많이 보이고 옷차림도 허술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고, 지금도 계속 건축 중에 있는 홍콩을 거쳐 대륙에 도착했다. 아세아에서 둘째로 국민소득이 많은 이곳이지만 그들은 그들 특유의 근면함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다. 해방 직후에 서울에서도 한참 유행하던 자전거가 이끄는 합승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한가를 알 수 있다. 거기도 질서정연하고 안정되 보였으나 태국처럼 자가용차가 많지 않은 것은 역시 국가에서 사치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 것 같다. 자유중국에서는 한시간을 입국하려고 해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세계를 일주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태국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30일간은 비자 없이 그곳에 체류할 수 있다. 그뿐 만 아니라 공항 세관에서의 소지품 검사도 매우 까다롭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격한 검사이다. 특히 전기용품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 국내 전기공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는 비자도 쉽게 내 준다.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대만대학에서 미국의 피바디 대학 동창인 라이 교수를 만났다. 그는 도서관학과 교수로서 수년전 한국에 온 일이 있다. 뜻하지 않은 나의 방문을 그는 몹시 반가워 했으며, 그곳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봄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도서관국제회의 때 중국대표로 오신 張東哲 씨도 만났다. 한번이라도 만난 사람을 다시 이국 땅에서 만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일본이 얼마 동안 통치했던 관계로 많은 건물들이 일본식인 것이 많이 눈에 띄이고 또 우리 나라 풍습이나 건축양식과도 비슷하여서 마치 이웃에 온 것 같은 감을 느끼게 된다. 중국 사람들도 역시 서양 사람과는 달리 이웃 형제 같다.

동경에 오니 왜 그리 일본인들이 작고 못났는지 의심할 정도이다. 특히 여자들은 더욱 작고 뚱뚱하고 못났는지 보기조차 싫을 정도이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의 高聖秀 씨를 반가히 만나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다. 동경 국제공항도 역시 확장하기에 바쁘다. 잠보 젯트기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너무도 간사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니 아니꼽기 짝없다. 살살이 같이 자기네 편에 유리한 곳이면 아무때나 서슴치 않고 붙어버리는 그들의 성격이 맘에 안든

다. 안보조약문제로 지금 한참 야단이고 오끼나와 반환문제 또한 그렇다. 좌익 거리의 투쟁상태 또한 소란하다. 미국 덕분에 경제가 부흥한 그 나라가 좌익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니 세상이도 변했다.

랏슈 아위에 밀어 닥치는 인파는 금방 질식할 것만 같은 답답증을 일으키게 한다. 뉴욕이나 런던 보다는 왜 그리 분주하게 오가는지 알 수가 없다. 누구나가 불분하고 돈벌이 때문일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도 일본인들이 당장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 아세아의 평화나 세계의 평화보다도 당장 돈을 버는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알찼다.

올림픽 덕택으로 여기 저기 고가도로가 생기고 전철이 늘은 것이 눈에 띄인다. 그러나 아직도 판잣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재래식 변소도 혼란 것을 보면 서울과 비슷하다. 한가지 욕심나는 것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것 뿐이다. 이런 것이 서울에 있으면 교통지옥을 좀 면할 수 있을텐데……하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서울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서울처럼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뿐 만 아니라 마음도 놓인다. 그러나 비행기로 불과 얼마 안되는 곳에는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고 동쪽끼리 양단된 곳은 거의 없는데 왜 우리 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조차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다. 땅덩어리가 작으니만큼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든다.

세계를 일주하고 나서 특히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점이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살결이 희고 미끈한, 그리고 지성적인 용모는 아세아 어느 곳에 가나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새삼스러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단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우리 강토가 외국의 침략을 여러번 받았다는 것은 숙명적일 까다.

서울은 세계의 어느 나라 수도 보다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산에 둘러싸인 서울, 높고 맑은 가을하늘 아래 한강을 끼고 펼쳐진 서울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또 한가지 느낀 점은 세계 어디를 가나 도서관인은 서로 통한다는 점이다.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인이 당면한 문제는 조금도 틀림 없이 공통된 것이었다는 말이다. 사서직의 대우문제가 첫째로 그렇고 도서관 운영문제가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나 곧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곧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세계가 서로 가까워짐에 따라 도서관 상호간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으며, 또 서로 가까워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통감하였다. (完)